

동네슈퍼마켓의 커뮤니티 코어로서의 가능성

김병재

동네슈퍼마켓의
커뮤니티 코어로서의
가능성

연구책임

김병재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과
석사과정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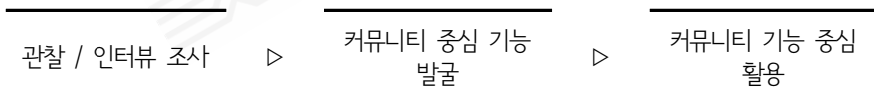
요약

동네슈퍼, 단순히 물건 파는 시설 넘어 커뮤니티 중심의 동네 플랫폼으로 활용

물건 파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많은 동네슈퍼

동네슈퍼에는 손님은 없지만, 그 자리를 주민들이 채워주고 있다. 동네슈퍼는 물건을 팔기 위해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보다 동네 이웃이 일상을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리며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되는 시간이 많다. 동네슈퍼가 오랫동안 동네의 사랑방, 즉 동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그 기능에 대해 주목받지는 못했었다.

이 연구는 동네슈퍼의 상업적 주요 기능인 판매기능이 아닌 동네와 관계 속에서 생성된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재조명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실제 현장 검증을 통해 이 기능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1] 동네슈퍼 커뮤니티 중심 기능의 활용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과 인터뷰를 이용한 사전조사를 통해 동네슈퍼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동네슈퍼의 커뮤니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동네슈퍼가 동네와 관계 맺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지, 둘째, 동네슈퍼가 위치한 지역이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있고 주거지의 경관이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지를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서울시 종로구 성곽마을 내에 위치한 4개의 동네슈퍼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동네슈퍼 커뮤니티 기능 조사를 위한 관찰 및 인터뷰 대상

명칭	위 치	영업기간
동네슈퍼 A	종로구 충신동	약 40년
동네슈퍼 B	종로구 이화동	약 20년 (가게 50년)
동네슈퍼 C	종로구 행촌동	약 40년
동네슈퍼 D	종로구 행촌동	약 40년

현장에서 진행된 관찰 조사와 동네슈퍼 주인과 인터뷰를 통해 동네슈퍼는 오랜 시간을 동네와 관계를 맺고 있던 만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동네의 택배 맡아주기, 휴식처, 사랑방 등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대부분 동네슈퍼의 이용자는 동네 내부인이었지만 예외적으로 ‘동네슈퍼 B’는 외부인 이용 빈도가 높았다. 위치한 지역의 관광가치가 높아지면서 외부 접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양하게 동네와 소통하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은 3가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2]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의 구분

구분	기능
Platform	동네 사랑방으로서 정보 및 관계의 플랫폼 ¹⁾
Archive	40여 년의 동네 변화를 관찰해 온 정보저장소
Connection	외부와 동네의 접촉점이자 완충역할

1) 플랫폼 전략은 일반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제공하는 차원의 전략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 활용 사례

관찰조사 결과로 ‘동네슈퍼 A’에서 마을의 어려운 분을 사회복지사나 새마을 협의회와 같은 마을 공동체에게 연결해주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활용해 동네의 형편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한 나눔 프로그램을 ‘동네슈퍼 A’에게 제안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정 예산을 가지고 동네슈퍼의 물품을 구입하여 생필품을 구성하고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여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을 선정하여 지원 물품을 연구자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네의 복지지원에서 동네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네슈퍼의 매출상승을 통한 영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표 3] 나눔 프로그램 과정에서 동네슈퍼의 커뮤니티의 중심기능 활용

나눔 프로그램 과정	커뮤니티 기능
Step 1: 외부의 제안 접수 및 지역 안내	Connection
Step 2: 나눔 대상자 선정	Platform
Step 3: 지역민 필요 물품 구성	Archive
Step 4: 물품 전달 및 주민과의 연결	Platform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프로그램의 결과 행정적 복지대상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복지대상과 지원물품을 선정할 수 있었고 총 44분에게 혜택이 전달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동네와 외부인과의 관계가 생산되고 확장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네슈퍼에서 조사된 지원 대상자를 이용해 동네슈퍼 커뮤니티의 영향에 대한 공간적 범위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일회성으로 이뤄진 이 프로그램이 상시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이다. 예산 확보 방안 중 하나는 동네슈퍼에서 주민들의 소비와 연결하여 소비금액의 일부를 공동체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동네 주민들의 자생적 활동을 통해 공동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외부 인력운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가능성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

동네 소비·생활의 연결고리 ‘마을 포인트’

시범적으로 운영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재조명하고 활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예산의 문제였고 예산의 확보는 동네의 공동자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산의 확보방안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매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네의 공동체 자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을 포인트’ 시스템은 간략하게 동네의 소비를 통해 공동체 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대형마트나 SSM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매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동네슈퍼에서의 소비를 통해 포인트가 쌓여가고 그 포인트를 활용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동네의 자산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기대효과는 동네 소비가 공동자산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이는 동네 공동체의 생활개선으로 연결되어 동네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동네슈퍼와 동네 공동체 상업시설에 대한 소비 가치를 동네의 발전과 연결하여 이용 빈도를 늘려 동네 상권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동네 발전을 위한 외부 인력의 기용이나, 동네 주민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마을 사업 등 ‘마을 포인트’의 가능성은 높다.

동네 공동체의 발전은 외부로부터 동네 상권과 생활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동네의 발전을 위한 복지나 개발을 외부인이나 공공기관의 일방적 지원에 의존한다면 의존도는 높아지고 지속성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자생적인 동네의 발전이 이뤄지고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네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자산마련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자산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이 활용될 수 있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2
2_연구목적	3
3_연구내용 및 방법	4
4_연구대상과 대상지	6
02 동네슈퍼의 현황과 공공의 지원정책	14
1_동네슈퍼에 대한 선행연구	14
2_동네슈퍼에 대한 공공지원정책	15
3_동네슈퍼의 현황	18
03 동네 커뮤니티를 위한 동네슈퍼 역할	24
1_동네슈퍼의 기능	24
2_동네슈퍼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요소	29
3_동네슈퍼의 커뮤니티 기능에 대한 분류와 활용방안	34
04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코어로서 가능성 실험	38
1_나눔 프로그램 개요	38
2_나눔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행	39
3_나눔 프로그램의 결과	44

05 결론 및 정책제언	52
1_연구의 성과 및 결론	52
2_동네의 소비와 삶 연결 ‘마을 포인트’	53
3_운영 관성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 정책	57
참고문헌	59
부록	61



표

[표 1-1] 동네슈퍼 조사 작업 결과	7
[표 1-2] 행촌공터의 주요 기능	11
[표 1-3] 대상지 커뮤니티 시설 현황	12
[표 2-1] 동네운영 특징	18
[표 3-1]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기능 분류	35
[표 4-1] 나눔 프로그램 대상자 목록	40
[표 4-2] 나눔 물품 구성 목록	41
[표 4-3] 나눔 프로그램 주체의 역할과 이점	47
[표 5-1] 연구의 주요결과	52
[표 5-2] ‘마을 포인트’와 일반 판매시설 ‘포인트’의 차이	54
[표 5-3] ‘마을 포인트’를 통한 기대효과	55

그림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1-2] 동네슈퍼의 변경 전(좌), 변경 후(우)	7
[그림 1-3] 연구대상지의 위치와 거주자 특징	9
[그림 1-4] 연구대상지의 세부 위치	9
[그림 1-5] 행촌동의 커뮤니티 시설	10
[그림 1-6] 이화·충신동의 커뮤니티 시설	11
[그림 2-1] 슈퍼마켓 ‘BIG 3’ 출점 현황	16
[그림 2-2] ‘동네슈퍼 D’의 계산기	19
[그림 2-3] 동네슈퍼의 위치	20
[그림 2-4] 동네슈퍼 내·외부인 이용현황	21
[그림 2-5] 동네슈퍼 이용자 연령대 분포	21
[그림 2-6] 동네슈퍼 이용자 행위 빈도	22
[그림 3-1] ‘동네슈퍼 A’ 이용자 행위 분포	30
[그림 3-2] ‘동네슈퍼 A’의 커뮤니티 매개 시설 A1(좌), A3(우)	30
[그림 3-3] ‘동네슈퍼 B’ 이용자 행위 분포	32
[그림 3-4] ‘동네슈퍼 B’의 커뮤니티 매개시설 A1(좌), A2(우)	32
[그림 3-5] ‘동네슈퍼 C’ 이용자 행위 분포	33
[그림 3-6]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매개시설 A1(좌), A2(중), A2(우)	33
[그림 4-1] 물품 조사를 한 용지(좌)와 구성된 나눔 물품(우)	42

[그림 4-2] 직접 배달(좌)과 방문 수령(우)	43
[그림 4-3] 나눔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45
[그림 4-4] 나눔 프로그램의 협력관계도	46
[그림 4-5] 나눔 물품 장소에 모인 주민들	48
[그림 4-4] 동네슈퍼 커뮤니티 활동의 공간적 범위	49
[그림 5-1] ‘마을포인트’ 시스템의 구조	56



01

연구개요

- 1_연구배경
- 2_연구목적
- 3_연구내용 및 방법
- 4_연구대상과 대상지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

1) 손님보다 주민이 많은 가게

연구는 동네슈퍼에서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의 관찰에서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그 모습에서 동네슈퍼는 물건을 팔기보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인지하게 되었다. 다른 동네를 지나가도 마찬가지로, 오래되어 보이는 동네슈퍼에서도 유사한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동네슈퍼는 상업공간으로 경제적 이윤 추구의 활동과 함께 다른 기능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언론 기사를 보면 대기업의 영업확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로서 동네슈퍼를 다룬다. 경제적 관점에서 동네슈퍼의 남은 운영구조나 시설은 개선의 대상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 하지만 시선을 달리 한다면 경제적 도시개발의 논리로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도시에서 우리가 잊고 지나가는 부분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동네슈퍼는 동네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업시설이자 동네의 공동체 구성원이다. 동네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 일상을 공유하며 동네주민들의 이용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였다. 동네슈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 그렇기에 동네슈퍼는 단순히 이윤만 추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동네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동네슈퍼는 지금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 중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가 된 것이다. 이 장소의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전에 이 장소가 동네 공동체 중심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 동네슈퍼를 상업공간에서 관계중심공간으로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경쟁적 진출 때문에 동네슈퍼는 쇠락하고 있다. 업체 수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고 대기업 상권은 여전히 확장 중이다. 대형마트, SSM, 편의점으로 이어지는 골목상권에 대한 점유는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공공은 대기업 상권 규제와 골목상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요한 지원 내용은 더 효율적인 시스템과 시설을 동네슈퍼에 도입하여 대기업 상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동네슈퍼를 비롯한 골목상권은 여전히 쇠락해 가고 있고 대기업 상권은 나날이 발전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

시설의 개선이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의 도입만으로 동네슈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동네슈퍼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경제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월한 대기업 상권의 기준을 통해 동네슈퍼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동네슈퍼는 대기업 상업시설과 다르게 경제적 가치 이외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동네슈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일 객체로서의 가치가 아닌 동네의 공동체적 가치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발굴이 중요하다. 물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지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네슈퍼의 경제적 가치만큼 사회적 가치도 함께 부각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_연구목적

1)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기능 분류해 활용성 증대

동네슈퍼와 동네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일상을 공유하

는 관계 속에서 동네슈퍼는 동네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기능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요소로 가정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이것은 동네슈퍼가 대기업의 상점과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각각의 동네슈퍼는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각각의 동네슈퍼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동네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동네슈퍼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동네를 통해 동네슈퍼가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동네슈퍼도 동네를 위해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동네슈퍼는 동네의 주민에게 휴식이나 교류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많은 기능이 축적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일상 속에 가려져 자연스럽게 이용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 생각되지 않았다.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기능을 분류하고 동네와 동네슈퍼의 가치발전에 활용 가능한 요소와 접목할 필요가 있다.

2)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기능 활용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기능을 동네의 실제 필요한 곳에 적용하여 실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기능의 실용성을 가시화하여 앞으로 진행될 동네사업이나, 공동체 구성 사업 등에 활용 가능한 사례로 남기고자 한다. 동네슈퍼나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경제적 접근법이 아닌 사회적 접근법으로 제시하면서 활성화 전략의 다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3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는 기존에 진행된 동네슈퍼에 대한 정책의 변화와 결과를 언론 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상권 확장에 대한 동네슈퍼의

지원방향은 규모의 경제 시스템 도입과 시설 개선, 경영 개선 등 경제적 관점에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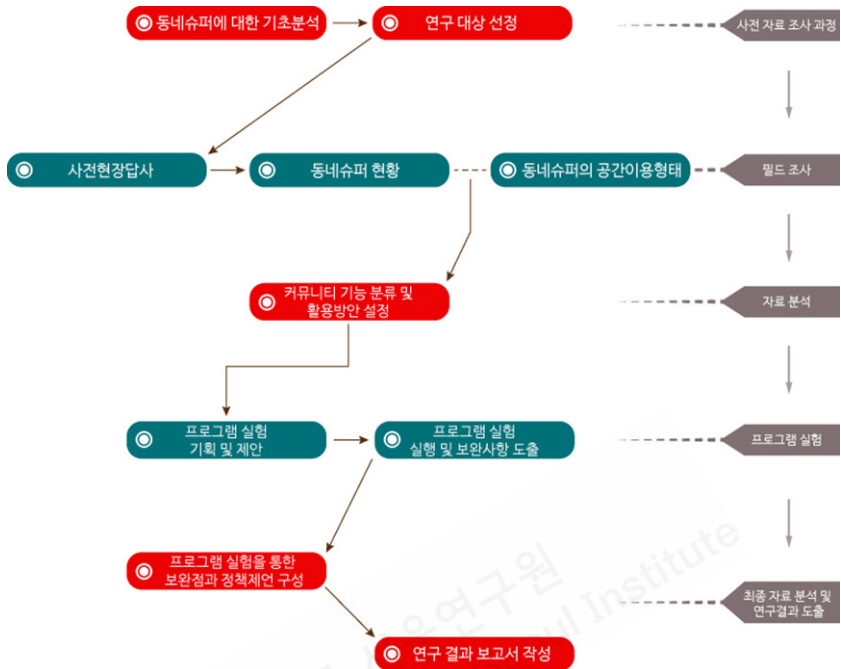
서울시 성곽마을에 위치한 동네슈퍼에 대한 현장답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동네슈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티 중심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분류하고 이용자 사용현황을 통해 동네슈퍼 공간에서 어떤 매개로 커뮤니티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분류된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기능을 동네 공동체 지원사업에 활용 가능한 부분과 접목하였다. 또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이 기능을 동네 복지에 직접 적용하였고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및 발전되어야 할 부분을 분석하고 ‘마을포인트’를 활용해 동네의 소비와 생활을 연결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네상권과 생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언론기사의 수집을 통해 동네슈퍼의 사회적 현황과 동네슈퍼를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먼저 동네슈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성향을 파악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동네슈퍼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동네슈퍼 주인들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동네슈퍼에 축적된 동네의 정보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지속적인 관찰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동네슈퍼의 이용현황 및 공간의 커뮤니티 매개 요소를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활용하는 나눔 프로그램을 제안해 실행하고 이를 통해 개선할 부분과 지속적으로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4_연구대상과 대상지

1) 연구대상

동네슈퍼는 관습적으로 구멍가게라고 불리는 동네의 종합소매점 형태의 상업시설이다. 배선헌·박선헌(2015)에 따르면 동네슈퍼의 전형적인 형태는 소형점포로 주택가에서 식음료나 주류 등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다. 동네슈퍼는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한국 체인사업 협동조합에 등록된 회원본부에 가입한 임의가맹점으로, 대부분 주택지역에 위치하여 주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용품을 취급하고, 영업시간이 길며, 매장 면적이 150㎡ 미만이고 점포주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한 생계형 위주의 점포를 지칭한다. 이것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구멍가게라고 부르는 동네의 종합소매점을 뜻한다.

연구대상의 선정요건은 1) 음식료품 위주의 생활잡화를 취급하는 종합 소매점이고 2) 규모는 10평 규모의 가게, 3) 위치는 동네의 내부나 경계에 위치한 근거리 소매점이어야 하며, 4) 살림집을 가지고 생활공동체와 일상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5) 운영은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로 편의점이나 SSM과 차별되어야 한다.¹⁾

위의 선정요건을 기반으로 도시재생활동가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동네슈퍼 6개를 제안받고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조사를 하였다. 총 6개의 동네슈퍼 중 부암동과 행촌동에 위치한 각각 1개소의 동네슈퍼는 이미 편의점으로 바뀌어서 제외하였고, 행촌동과 충신동, 이화동에 위치한 4개의 동네슈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다음지도 로드뷰 (좌,2012.05)

[그림 1-2] 동네슈퍼의 변경 전(좌), 변경 후(우)

[표 1-1] 동네슈퍼 조사 작업 결과

명칭	위 치	사전조사	관찰조사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실행
동네슈퍼 A	종로구 충신동	○	○	○	○
동네슈퍼 B	종로구 이화동	○	○	X	X
동네슈퍼 C	종로구 행촌동	○	○	○	X
동네슈퍼 D	종로구 행촌동	○	X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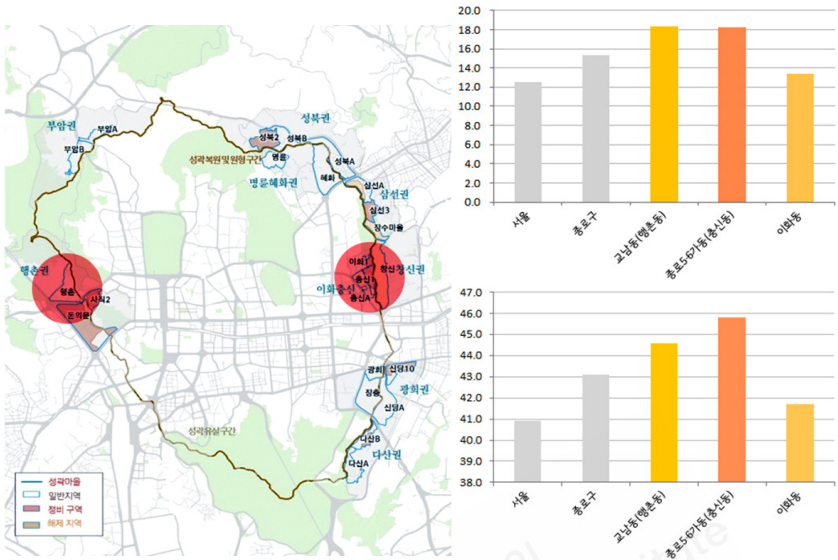
1) 심우장, 2014, “구멍가게의 역사와 기능”, 실천민속학연구 제24호, 37, pp.89~125

각 연구 대상은 연구 진행정도의 차이가 있다. 먼저 ‘동네슈퍼 D’는 관찰조사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사전조사까지 이뤄졌다. 관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동네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동네슈퍼 A’와 ‘동네슈퍼 C’로 압축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동네슈퍼 A’의 관찰내용을 통해 나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제안 후 실행하였다.

2)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성곽마을에 위치한 동네를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문화재 보존 등 다양한 규제로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어려운 지역이다. 그리고 지역주거지의 경관이 보존되어 있어 지역 커뮤니티가 잘 유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동네는 주거지를 기초로 물리적·상징적 경계를 가진 지리적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고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장소²⁾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대상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곽마을에 속한 22개의 마을은 유사한 물리적 환경과 성곽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라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어, 변수를 최소화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대상지이다.

2) 곽현근, 2007,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24호, 28, pp.5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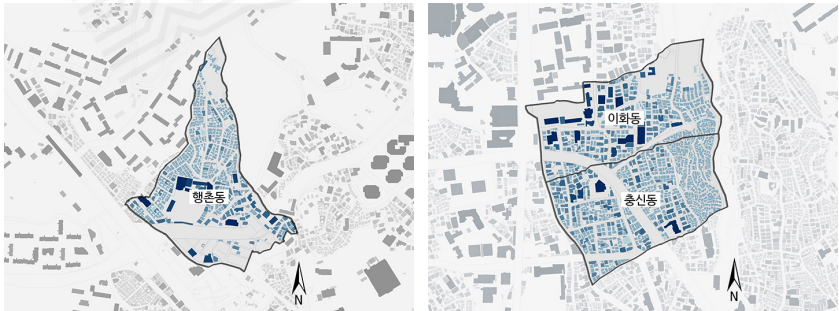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성곽마을 전체범위 안

자료: 1) 서울통계, 동별 고령자 현황 2016, 2/4분기(위)

2) 서울통계, 동별 평균연령, 2016, 2/4분기(아래)

[그림 1-3] 연구대상지의 위치와 거주자 특징



[그림 1-4] 연구대상지의 세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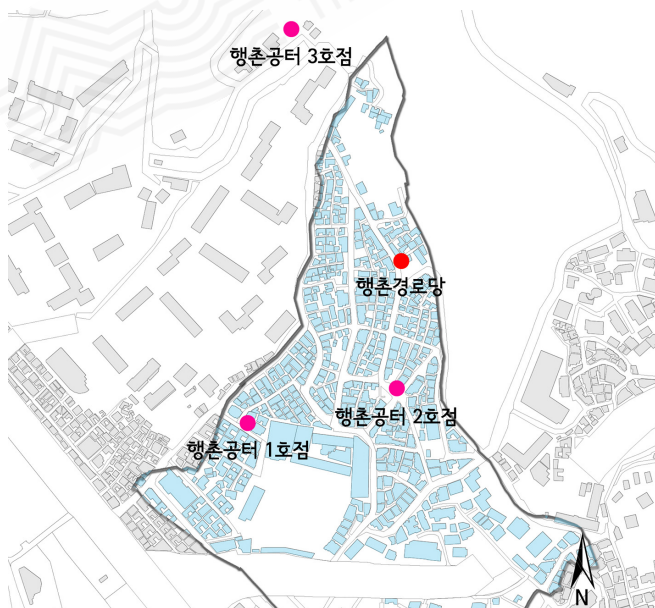
연구 진행을 위해 선정된 대상지는 충신동, 행촌동, 이화동의 3개 지역이다. 대상지는 서울시 평균 연령보다 많은 주민들의 평균 연령을 통해 고령화 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정주기간이 길고 일상의 관성이 유지되고 있어 동네슈퍼와 관계형성에 유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지는 개발의 제한과 고령화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 및 외부조직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장시간의 정주기간을 통해 형성된 커뮤니티 관계를 유지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장소의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외부주체가 동네의 커뮤니티 중심장소를 파악하고 있다면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부의 지원이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혜택과 연결되어 상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연구대상지의 커뮤니티 시설

(1) 행촌동 커뮤니티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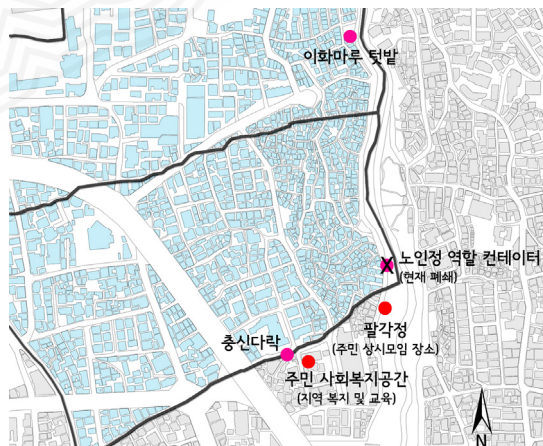
[그림 1-5] 행촌동의 커뮤니티 시설

행촌동의 커뮤니티 시설은 크게 행촌공터와 행촌경로당으로 볼 수 있다. 행촌경로당은 기존 노인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복지시설이다. 행촌공터는 서울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행촌공터 3개소를 설립하여 도시농업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과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시설이다. 행촌공터의 주요 기능은 행촌공터 1호점을 도시농업 중심 재생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설정하고 2호점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 3호점은 도시 농업의 교육장 및 카페로 활용될 예정이다³⁾.

[표 1-2] 행촌공터의 주요 기능

명칭	규모	주요프로그램	주요기능
행촌공터 1호	지하 1층, 지상 3층	식물약국, 마을박물관, 재생지원센터, 옥상경작소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행촌공터 2호	지상2층	주민텃밭, 공유부엌	주민 커뮤니티 코어
행촌공터 3호	지상2층	도시농업 교육장	농업 교육
행촌공터 3호	지상2층	도시농업 교육장	농업 교육

(2) 이화·충신동 커뮤니티 시설



[그림 1-6] 이화·충신동의 커뮤니티 시설

³⁾ <http://www.ajunews.com/view/20160725103426899> (아주경제, 2016.07.25)

이화·충신동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 단계의 상황이어서 공공의 계획으로 생긴 커뮤니티 시설은 부족하다. 이화마루 텃밭은 마을주민들의 공동텃밭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으로 만들어졌다. 동네의 장기간 방치된 공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공동운영하는 텃밭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관광객의 증가로 내·외부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소 역할을 하고 있다.

충신동 지역에서는 노인정 역할을 하고 있던 컨테이너가 사라지게 되자 인근 공원 팔각정이 동네 고령자들의 임시 커뮤니티 시설이 되었다. 그 때문에 동네 노인정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충신다락이 설립되었고 인근에 지역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교육 및 주민지원 프로그램 공간이 있다.

(3) 대상지의 커뮤니티 시설 현황의 차이

행촌동과 이화·충신동의 커뮤니티 시설 현황의 차이는 행촌동은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시설이 형성되고 이제 활용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도시 농업 수확물을 통해 이익금을 발생시키고 지역 공유재를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로 나타난다. 이화동의 경우 지역의 관광지로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들은 외부인과 공유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고 충신동의 경우 외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들은 기존시설들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고 있다.

[표 1-3] 대상지 커뮤니티 시설 현황

행촌동	이화동	충신동
주민 커뮤니티 형성 중심 시설 확충	주민 커뮤니티 시설 일부 외부인과 공유	커뮤니티 시설 부재로 주민자체 노력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 및 유지

02

동네슈퍼의 현황과 공공의 지원정책

- 1_동네슈퍼에 대한 선행연구
- 2_동네슈퍼에 대한 공공지원정책
- 3_동네슈퍼의 현황

02 | 동네슈퍼의 현황과 공공의 지원정책

1_동네슈퍼에 대한 선행연구

동네슈퍼에 대한 기존 연구는 경제적 관점에서 진행된 대기업의 상권 확장이 동네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권태구·성낙일, 2014; 류주현, 2004; 이경민 외, 2014). 이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대기업의 SSM 확장이 경쟁적으로 일어나면서 동네상권이 급격하게 쇠퇴되었다.⁴⁾ 쇠퇴된 동네상권에 대한 공공의 정책 지원이 실행되었고, 대형마트의 규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증 연구(마상열·안점판, 2012; 이은주·권영선, 2014; 김범식, 2012)는 동네상권에 대한 공공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쇠락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동네슈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배선헤·박소현, 2015; 심우장, 2014)는 동네슈퍼의 공동체적 가치와 민속학적 관점기능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동네슈퍼의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동네슈퍼의 사회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동네슈퍼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정책적, 사회적 영역에서 각각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동네슈퍼의 사회적 기능이 경제적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전제로 진행되었다. 동네슈퍼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경제적 방법의 차용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법을 실제 현장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검증하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다른 접근방식으로 동네슈퍼를 연구하는 것이기에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4) 마상열·안점판, 2012,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의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방안”, 「정책포커스」, 2012.4, pp.1~35, 경남발전연구원

2_동네슈퍼에 대한 공공지원정책

1) 대기업자본의 동네상권 진출과 동네슈퍼의 쇠락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은 동네상권의 쇠락으로 직결된다. 서울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확장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서울의 동네슈퍼는 25.9%, 즉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⁵⁾ 권태구·성낙일(2014)의 연구에 의하면 대형마트 한 개당 동네슈퍼 22개, SSM 한 개당 동네슈퍼 7개가 문을 닫았다. 대기업의 동네상권 독점은 곧 소상공인에 의한 반발로 나타났고 사회적 이슈로 연결되었다.

동네슈퍼는 1990년대에 편의점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밀려나다가 1997년 IMF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소비가 감소하고 대기업과 외국계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농협도 유통망을 새롭게 정비하여 하나로마트를 지역 단위까지 확장시키게 되었기 때문이다.⁶⁾ 2006년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기업은 기업전략의 중심을 SSM확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것은 2008년 대기업의 경쟁적 SSM 확장을 일으키게 되고 동네슈퍼는 쇠락의 가속도를 더해가게 되었다.⁷⁾ 2009년부터 SSM의 확장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동네상권의 운영주체들은 공공의 정책적 지원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2) 동네슈퍼에 대한 공공의 지원정책

SSM과 대형마트에 따른 동네슈퍼의 쇠락이 사회적 이슈로 연결되면서 공공은 정책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동네슈퍼의 쇠락 원인을 SSM이나 대형마트보다 낙후된 시설과 가격경쟁력으로 보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자금지원과 유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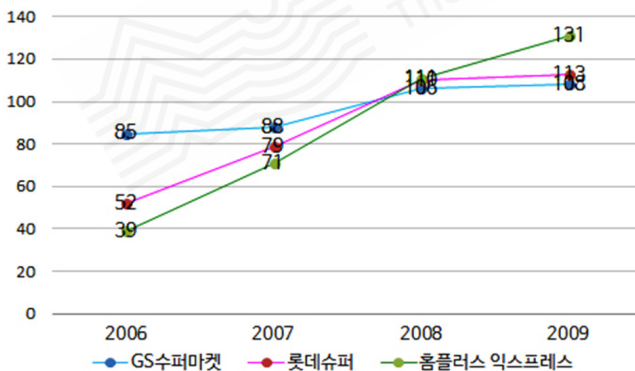
⁵⁾ <http://www.nocutnews.co.kr/news/1016908> (노컷뉴스, 2013.03.25)

⁶⁾ 심우장, 2014, “구멍가게의 역사와 기능”, 실천민속학연구 제24호, 37, pp.89~125

⁷⁾ 신기동 외. 2010,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의 지역상권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정책연구」, pp.1-133, 경기연구원

지원을 통한 유통비 절감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나들가게’가 생겼고, 서울시에는 동네슈퍼(상권)전용 물류센터가 개장되었다. 이후 공공은 시설뿐만 아니라 ‘슈퍼닥터’ 컨설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시스템 지원 등 동네슈퍼를 살리기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공공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SSM과 대형마트의 확장이 지속되자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는 공공이 SSM과 대형마트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SSM과 대형마트에 대한 입점제한과 의무휴업을 조례로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이 동네상권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⁸⁾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대형마트, SSM의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그것이 동네슈퍼의 매출증가로 연결되지는 못했다.⁹⁾ 동네슈퍼는 여전히 대기업 상권에 의한 영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동네슈퍼 6개소 중 2개소는 편의점으로 전환되었고, 2개소는 편의점으로 전환을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슈퍼마켓업계, ‘홈플러스 경계령’”, 이데일리, 2009.03.19

[그림 2-1] 슈퍼마켓 ‘BIG 3’ 출점 현황

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7173457>(연합뉴스, 2014.10.08)

⁹⁾ 이은주·권영선, 2014,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정책이 실제 소형가게 매출을 증가시켰는가?”,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565~584, 한국산업경제학회

3) 동네슈퍼의 시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의 한계

동네슈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동네슈퍼의 시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설과 운영의 개선을 통해 SSM이나 대형마트와 시장경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곧 한계를 보였다. 공공은 ‘나들가게’를 통해 SSM과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네슈퍼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였지만, 인프라 구성이나 사후관리 부진으로 ‘나들가게’의 폐업률은 12%에 달하였고 폐업의 사유는 대부분 영업부진으로 분석되었다.¹⁰⁾

동네슈퍼의 시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는 공동구매, 공동판매와 같이 공동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동네슈퍼의 가격 및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SSM과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파편화되어 있는 동네슈퍼를 조직화한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실행되기 힘든 부분이였다.¹¹⁾

4) 동네슈퍼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

동네슈퍼는 관계망 중심의 근거리 소매시설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대형마트나 SSM과 확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기업의 판매시설은 효율성을 높여 이윤창출의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동네슈퍼는 동네의 주민이자 서비스 생산자이고 판매자이다. 동네슈퍼의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보완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망 강화도 양립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정책제언의 장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이 연구를 통해 관계망 강화로 동네슈퍼의 상업적 기능도 강화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¹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7064982> (연합뉴스, 2014.08.13)

¹¹⁾ <http://mnbn.moneynews.com/mnbview.php?no=2013030722008084686> (MNB, 2013.03.08)

3_동네슈퍼의 현황

1) 동네슈퍼 운영의 특징

동네슈퍼 운영의 특징은 주인이 고령자이고 혼자 운영하거나 부부나 가족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카드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피된다.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세금 및 수수료 지급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동네슈퍼에서 파는 물건의 대부분은 소액 상품이다. 얼마 남지 않는 장사에 카드사용을 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사용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동네슈퍼 C’와 ‘동네슈퍼 D’의 주인은 계산기조차 사용하지 않으신다. 대부분은 암산이나 지난 달력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손으로 계산한다.

[표 2-1] 동네운영 특징

명칭	운영자 나이	운영인원	신용카드 사용여부
동네슈퍼 A	70대	부부	기계는 있지만 사용에 부정적
동네슈퍼 B	70대	부부 및 가족단위	사용 안 함
동네슈퍼 C	70대, 90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용 안 함
동네슈퍼 D	80대	혼자	사용 안 함

활동가: 카드를 안 놓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할머니: 몰라, 카드를 할 줄을 몰라

활동가: 카드하면 장사가 더 잘되지 않을까요?

주인할머니: 더 되지. 근데 나는 안 하려고, 안 하기도 하려고. 그냥 나는 이제 천국이야. 우리 애들이 건강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근심 없으니까. 천국이지 별거 있어? 그러나 지루하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 때도 여기서 다 버텼어. 문 열어 놓고 자면서 버틴 거야. 더러더러 잊어버리기도

하지만(도둑) 그렇게 잊어버린 것도 없고. 그냥 사는거야.

-‘동네슈퍼 D’주인과 도시재생활동가의 대화내용-

대화의 내용을 보면 동네슈퍼의 매출보다는 일상화된 운영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동네슈퍼 주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난다. 동네슈퍼의 운영기간이 20년에서 40년까지 장기간 반복적인 형태로 고착화되었고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림 2-2] ‘동네슈퍼 D’의 계산기

2) 동네슈퍼의 위치적 특징

동네슈퍼는 동네의 바깥쪽 혹은 입구에 위치하는 것과 동네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동네의 바깥쪽이나 입구에 위치한 동네슈퍼는 버스 정거장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고 동네 중심에 위치한 동네슈퍼는 마을회관이 나 경로당과 같이 동네 커뮤니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공간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다.¹²⁾

12) 심우장, 2104, “구멍가게의 역사와 기능”, 실천민속학연구 제24호, 37, pp.89~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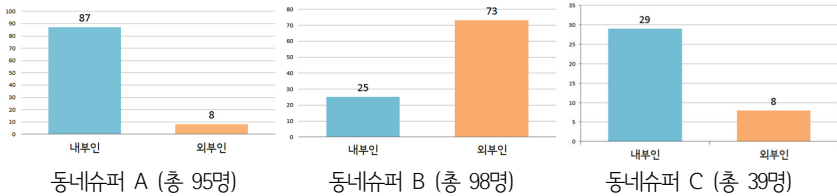
[그림 2-3] 동네슈퍼의 위치

동네슈퍼의 위치적 특성은 동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네 사람들이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가고, 사랑방과 같은 커뮤니티의 중심 기능을 하는 것도 이런 위치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동네에서 접근성이 높고 외부와 접촉성이 높기에 상업적 활용가치도 높아 편의점 입점의 주요한 타겟이 된다. 사전 조사를 위해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 이미 6개소의 동네슈퍼 중 2개소는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 중 2개소는 편의점으로 바꿀 것을 제안받았다고 하였다.

3) 동네슈퍼의 이용자 이용현황

동네슈퍼 이용자 현황에 대해 관찰 조사한 결과 ‘동네슈퍼 A’, ‘동네슈퍼 C’의 이용자 대부분은 동네 주민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대부분은 동네슈퍼의 주인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일상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네슈퍼 B’의 이용자 현황은 외부인이 많았다. 이것은 슈퍼가 위치한 동네가 관광 가치가 높아지고 외국인 관광객 등 외부인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지역성의 차이는

내·외부인 현황뿐만 아니라 이용자 연령대, 사용행위에서도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동네슈퍼가 주변 지역성과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4] 동네슈퍼 내·외부인 이용현황

동네슈퍼 이용자 연령대의 분포는 내·외부인 현황 결과의 연속으로 보인다. ‘동네슈퍼 A’와 ‘동네슈퍼 C’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면서 40대 이상의 사용자가 주요한 이용자로 나타났고 ‘동네슈퍼 B’는 20대가 주요 이용자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보면 ‘동네슈퍼 A’와 ‘동네슈퍼 C’는 40대 이상의 동네주민이 주요 이용객이고, ‘동네슈퍼 B’는 20대 관광객이 주요 이용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5] 동네슈퍼 이용자 연령대 분포

동네슈퍼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행위는 상업시설 이용에 대한 소비 행위를 제외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동네슈퍼 A’와 ‘동네슈퍼 C’에 비하여 ‘동네슈퍼 B’는 대화¹³⁾ 부분이 낮게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주요 이용객의 차이에 따른 현상이다.

13) 이 자료에서 ‘대화’는 판매를 위한 대화는 제외하고 안부인사, 친목을 위한 대화, 일상의 공유와 같은 행위를 말한다.



[그림 2-6] 동네슈퍼 이용자 행위 빈도

‘동네슈퍼 A’와 ‘동네슈퍼 C’는 동네 주민의 주요 이용으로 인해 일상적 대화와 소통이 많이 일어나고 ‘동네슈퍼 B’는 외부인, 즉 관광객 중심의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행위가 많았다. 동네슈퍼 B에서 이용객의 단순 휴식 행위 빈도가 높은 것은 위치한 지역이 경사지 위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쉬어가기 위한 의자나 평상을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네슈퍼 A’와 ‘동네슈퍼 C’와 같이 동네슈퍼를 이용하는 동네주민이 많은 곳은 상호 관계를 쌓기 위한 대화가 많아지고 동네 주민의 일상이 동네슈퍼에 전달되어 동네의 소식이 쌓인다. 이것은 동네의 커뮤니티 공간 역할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네슈퍼 B’는 상대적으로 동네 주민과의 접촉이 낮지만 외부인의 이용 빈도가 높다. ‘동네슈퍼 A’와 ‘동네슈퍼 C’와는 반대로 동네의 소식을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는 다른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나타날 수 있다.

03

동네 커뮤니티를 위한 동네슈퍼 역할

- 1_동네슈퍼의 기능
- 2_동네슈퍼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요소
- 3_동네슈퍼의 커뮤니티 기능에 대한 분류와
활용방안

03 | 동네 커뮤니티를 위한 동네슈퍼 역할

1_동네슈퍼의 기능

1) 근거리 소매점

동네슈퍼의 기본적인 기능은 생활용품을 수급하여 공급하는 동네의 소매시설이다. 동네 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기본적으로 영업시간이 길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언제든지 손쉽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소득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원거리 도매점을 통한 대량 구입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은 비쌌지만 물품구입에 용이한 동네슈퍼 이용을 선호하였다. 동네 주민들의 일상은 반복성이 높기 때문에 동네슈퍼가 상품의 수요예측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동네슈퍼는 동네에서 필요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만물상회라는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실제 많은 물건을 구비한 것이 아닌 동네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¹⁴⁾ 현재는 이러한 근거리 소매점의 기능은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 등으로 옮겨가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네의 정주기간이 오래된 주민들만 일상의 관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 동네슈퍼가 근거리 소매점으로 영업적 전성기를 누렸을 때는 학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의 물품구비 시스템은 학생이 필요한 물품을 개개인이 구비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대량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학교의 지시에 따라 개개인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물품의 공급이 동네슈퍼에서 이뤄졌다.

14) 심우장, 2104, “구멍가게의 역사와 기능”, 실천민속학연구 제24호, 37, pp.89~125

그때는 학생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면 이 치마에 돈이 하나 가득했어, 애들이 흠쳐가도 몰라 너무 많아서 엄청 팔렸었지, 우유, 하드, 휴지 지금은 안 해도 그때는 애들한테 다 휴지 가져오라고 했지. 애들이 또 시험 잘 보면 선생님들이 우유 한 박스씩 사 먹이고, 하드 사 먹이고 그랬지, 무조건 한 시간 끝나면 나와서 사가지고 가니까 한 시간 되면 치마로 돈이 한가득했어. 그때는 학교 매점도 없었어. 그 대신 장사가 여기저기 곳곳마다 있었지, 이곳에만 4개가 있었어. 그랬는데 자기 집인 사람들만 살아 남고 세 들어서 하던 사람은 다 나갔지.

-동네슈퍼 C 주인과 인터뷰 내용-

‘동네슈퍼 C’뿐만 아니라 ‘동네슈퍼 A’도 현재 없어졌지만 인근에 학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학교의 이전과 인근에 들어선 편의점 때문에 동네슈퍼는 감소하고 현재 남아 있는 동네슈퍼는 자기소유의 건물주만 남아있게 되었다.

2) 외부와 소통 공간

동네슈퍼는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나 마을 외곽, 즉 동네의 경계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접근할 경우 1차적 접촉대상이다. 동네슈퍼의 위치분석을 통해 ‘동네슈퍼 B’를 제외하고는 동네슈퍼 3개소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동네슈퍼는 외부인의 접촉빈도가 높다. 동네로 진입할 때 동네슈퍼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네에 대한 사전정보를 구할 수 있다. 외부 접촉의 활용도가 높은 곳은 ‘동네슈퍼 A’와 ‘동네슈퍼 B’이다 ‘동네슈퍼 A’는 동네의 복덕방 즉 부동산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외부에서 동네로 이주할 때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을 이용한 외부 손님이 동네로 이사 오게 되면 동네슈퍼의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마을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과거 복덕방 공간을 마을 공유공간으

로 이용하여 도시재생활동가의 업무나 동네 내·외부인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네슈퍼 B’는 동네의 관광 가치가 높아지면서 동네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동네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동네 슈퍼를 이용하면서 동네의 길을 물어보거나 동네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동네의 인포메이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3) 동네슈퍼 이용객에 대한 맞춤 서비스 기능

동네슈퍼는 주민의 생활용품을 공급하지만 일반 상업시설과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이것은 동네슈퍼가 동네주민과 소통하고 쌓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다.

(1) 외상구매

동네슈퍼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물건을 먼저 내어준다. 이것은 동네슈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지만 동네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이기에 외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동네주민이 동네슈퍼를 이용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동네슈퍼가 동네 공동체 내부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상은 일종의 신용거래이다.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외상거래는 동네슈퍼에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다.¹⁵⁾

연탄 땔 때는 가난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못되었으니까(어려우니까) 동네에서 외상으로 가져다 퍼 때고, 그냥 불 때서 자기도 하고, 그냥 다 때먹고(외상) 이사 가기도 하고, 하다 보면 사정 좀 나아지면 여기서 쌀 한 말 팔아주고 그래.

-사전 조사 작업 때 동네슈퍼 D 주인과 인터뷰-

15) 심우장, 2104, “구멍가게의 역사와 기능”, 실천민속학연구 제24호, 37, pp.89~125

(2) 동네와 함께하는 운영방식

동네슈퍼는 물품을 판매하는 상업시설이지만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이다. 동네슈퍼의 이용 고객도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동네슈퍼의 운영 방식은 주민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손님이 찾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상시 구비를 해둬서 필요시 제때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영업시간을 이용하는 동네주민에게 맞추기도 한다.

예전에는 새벽 5시만 되면 문 열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꼭 그 시간만 되면 콩나물 사러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꼭 그때는 새벽에 문을 열어야 했어요. 아주 지겨워 죽을 뻔했어. 그때는 콩나물 두부도 팔았지. 아, 지금도 팔아.

-동네슈퍼 C 주인과 인터뷰 내용-

또한 사전조사에서 ‘동네슈퍼 D’는 택배를 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동네슈퍼 D’의 주인은 물건을 맡아주다가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존속감이 이런 역할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근데 저번에 내가 돈 10만 원 물어줬어. 그 무슨 택배를 토틈 집 만한 것을 가져다주더니 잘 두세요. 그러고 여기다 (빵산반) 얹어 놔서 그랬는데, 빵장사가 그 사람이 빵틀 바꿨어요. 빵틀을 바꾸고 그것을 찾으러 왔는데 그걸 없어요. 그래서 빵 장사 보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모른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걸 껌데기예 물품 이름이 써졌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가져갔지 뭐. 그래서 내가 10만 원 물어줬어

-사전조사에서 동네슈퍼 D 주인과 인터뷰 내용-

4) 동네 주민의 놀이 공간

동네슈퍼는 물품을 팔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동네슈퍼는 동네주민의 필요에 따라 차를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술자리를 가지거나 식사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동네슈퍼 A’에서는 아침마다 동네 주민 2~3분이 나와서 주인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점심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가거나 슈퍼공간 내에서 함께 먹는다. 가끔 손님이 막걸리나 맥주를 사서 테이블에 앉으면 동네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모습은 ‘동네슈퍼 A’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슈퍼에서도 관찰되었다. ‘동네 슈퍼 B’는 내부 공간보다 슈퍼 옆에 있는 의자나 외부 평상을 이용하였고, ‘동네슈퍼 C’는 내부공간을 이용하였다.

5) 동네의 정보교환 장소

동네슈퍼는 동네의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다. 일상적인 인사나 대화뿐만 아니라 동네의 생활 편의 정보, 이웃에 관한 정보까지 많은 정보가 곳곳에서 표출된다. 이런 다양한 정보는 동네슈퍼 주인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동네의 주민에게 전달한다.¹⁶⁾ 이용자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대화 내용은 건강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었다. 몸 상태의 증상을 공유하거나 자신이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의 공유를 통해 상호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었다.

손님: 이는 진짜 잘하는 곳으로 가야 해

주인: 그럼요

손님: 내가 이를 잘못해 8개가 작살이 났어. 저기 어디야, 광진구, 그쪽으로 가는데 저기는 괜찮아

주인: 저는요 여기 OO치과에서 했는데

16) 심우장, 2104, “구멍가게의 역사와 기능”, 실천민속학연구 제24호, 37, pp. 89~125

손님: 거기는 하기는 잘하는데 의사가 만사를 귀찮아해 어지간하면 밑
의 사람이 다하고 나이가 70 중반이지 돈은 벌어들였지 실은 이빨(이)하는
사람이 낚새나는 사람이거든 속에서, 돈 벌고 떠나고 나면 다시 하기
힘들어

-‘동네슈퍼 A’에서 손님과 슈퍼 주인의 대화-

동네슈퍼에서 동네의 행정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간다. 마을의 불편사항이나 개
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동네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서로 고민한다. 동네슈퍼의 이러한 정보교환 기능은 동네 공동체의 네트워크 허
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동네 주민들의 교류 중심에서 동네슈퍼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동네 정보가 축적되고 자연스럽게 동네 주민들의 손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쌓인다. 동네슈퍼의 기능을 통해 동네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잠재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동네슈퍼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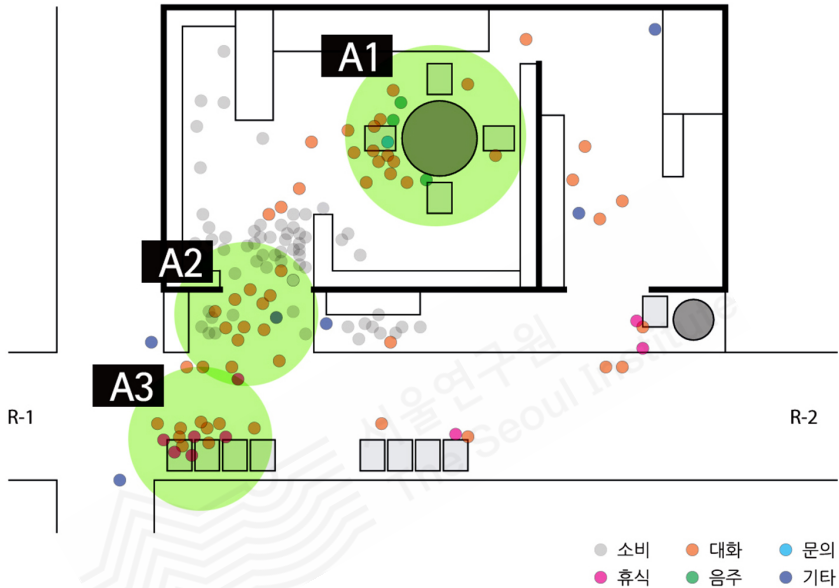
2_동네슈퍼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요소

동네슈퍼에 대한 관찰조사를 통해 동네슈퍼 이용객의 행위 분포를 공간상에 표
시하여 나타난 결과를 통해 동네슈퍼의 공간에서 어떤 요소들이 커뮤니티와 관련
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리적 환경을 분석해 보았다.

1) ‘동네슈퍼 A’의 공간 이용현황

‘동네슈퍼 A’의 공간 이용패턴을 분석하면 크게 A1, A2, A3의 공간에서 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A2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동네슈퍼의
입구에서 서로 안부를 묻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와 함께 일어났다. A1과 A3

에서는 의자와 테이블을 이용한 착석한 상황에서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 요소들은 동네슈퍼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성이 낮은 동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네에게 내어주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공간은 ‘동네슈퍼A’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슈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림 3-1] ‘동네슈퍼 A’ 이용자 행위 분포



[그림 3-2] ‘동네슈퍼 A’의 커뮤니티 매개 시설 A1(좌), A3(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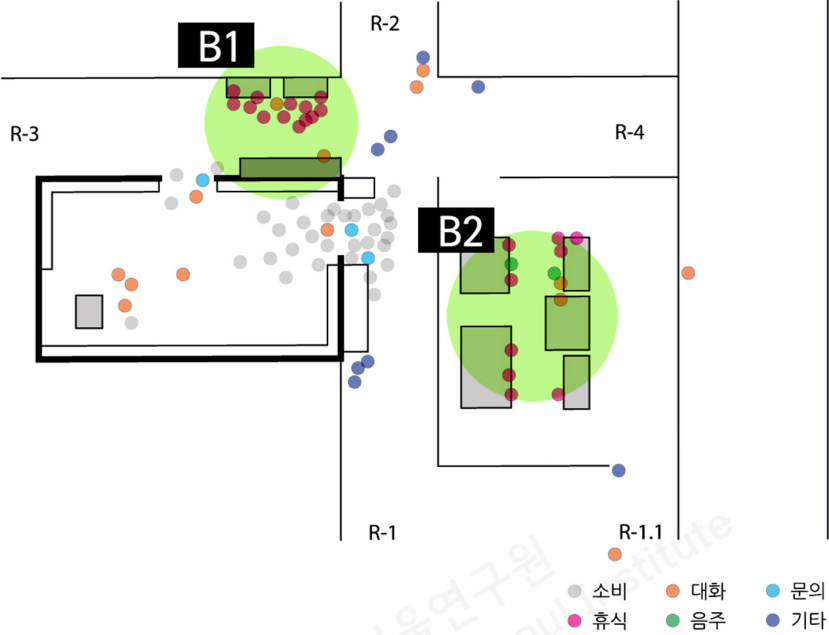
‘동네슈퍼 A’에서 외부에 놓인 의자는 동네주민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었다.

예전에 전수학교가 있을 때에도 담 밑에는 (동네 노인분들) 잠깐잠깐 쉬었다가는 것이 있었어. 그런데 저게 있으면 올라가다 저기서 쉬었다가. 한 번에는 못 올라가서. 그리고 저게 없으면 코너에 차를 대, 저기 차 대면 다른 차가 못 돌아가잖아 그래서 저걸 놔두면 일부러 내려서 저걸 치우고 가지는 않을 거니까 저기 놔둔 거야.

-동네슈퍼 A에서의 인터뷰 내용-

2) ‘동네슈퍼 B’의 공간 이용현황

‘동네슈퍼 B’에도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요소 B1과 B2는 존재하였지만 사용의 방법과 주체는 ‘동네슈퍼 A’와 다르게 나타났다. B1과 B2의 이용방식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많은 이용자가 외부인이고 연령대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네슈퍼 B’의 주인과 대화나 소통보다 자체적 휴식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 동네주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평상이나 의자에서 ‘동네슈퍼 A’와 같이 일상의 대화를 나누거나 음료나 술을 마시며 친분을 나누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렇기에 다른 동네슈퍼와 이용패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요 이용자의 차이와 관련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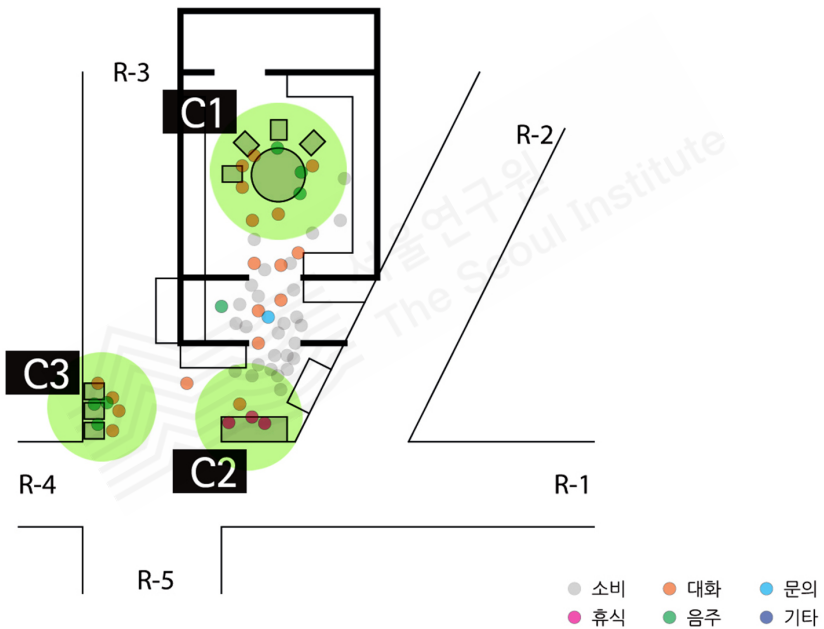
[그림 3-3] '동네슈퍼 B' 이용자 행위 분포



[그림 3-4] '동네슈퍼 B'의 커뮤니티 매개시설 A1(좌), A2(우)

3) ‘동네슈퍼 C’의 공간 이용현황

‘동네슈퍼 C’에서도 다른 곳과 유사한 커뮤니티 공간의 요소가 C1, C2, C3에서 나타났다. 주로 테이블과 간단한 의자를 배치하여 사용하였다. 주요 이용현황은 C1에서는 ‘동네슈퍼 C’의 주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행위가 나타났고 C3에서는 이용자끼리 소통하는 경향이 보였다. C2에서는 소통보다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적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음주나 휴식이 이뤄지는 사용패턴을 보였다.



[그림 3-5] ‘동네슈퍼 C’ 이용자 행위 분포



[그림 3-6]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매개시설 A1(좌), A2(중), A2(우)

3_동네슈퍼의 커뮤니티 기능에 대한 분류와 활용방안

1) 동네의 플랫폼 기능

동네슈퍼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자 생산성을 잠재하고 있는 역할은 교류 장소로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통해 동네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이를 통해 동네와 관계 쌓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능은 동네와 공동체의 연결망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동네의 지역 사업이 필요할 때 정보를 취합하고 인력에게 배분할 때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해 준다. 동네슈퍼는 현재 공공이나 민간 외부지원단체가 동네를 위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

2) 동네 정보 아카이브 기능

동네슈퍼는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을 동네와 함께 해 왔다. 동네와의 관계를 통해 오고간 사소한 정보들의 축적, 동네 주민들의 개인적인 변화부터 동네의 행정변화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소위 동네의 시시콜콜한 속사정까지 알고 있는 동네슈퍼는 외부의 복지 프로그램이나 지원 단체와 협력을 통해 동네 주민들의 생활건강 모니터링, 생활편의정보 수집 등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행정정책이나 지역연구를 위한 학술적 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 및 이용될 수 있다.

3) 동네 외부와 소통의 기능

동네슈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외부와의 1차적 접촉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기능을 외부와 연결을 통해 발휘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이다. 외부에서 지원이나 협력 사업이 이뤄질 때, 동네 공동체 간의 관계나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유의할 점이나 동네 상황의 이해가 필요할 때 동네슈퍼는 완충적 역할로 소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표 3-1]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기능 분류

분류	이용기능	연계시설	활용분야
동네의 플랫폼 (Platform)	사회적 기능	행정 및 복지	동네의 생활정보 수집 및 전달
동네의 정보 아카이브 (Archive)	시간적 기능	학술 연구 및 복지	동네 주민의 특징 및 동네 역사
동네의 외부 소통 기능 (Connection)	장소적 기능	외부 지원 및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	지역 콘텐츠 생산 및 동네 안내소



04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코어로서 가능성 실험

- 1_나눔 프로그램 개요
- 2_나눔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행
- 3_나눔 프로그램의 결과

04 |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코어로서 가능성 실험

1_나눔 프로그램 개요

1) 배경

‘동네슈퍼 A’에서 관찰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동네슈퍼 A’ 주인이 도움이 필요한 동네 분을 사회복지사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같은 공동체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네슈퍼는 단순한 판매기능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에 기여함으로써 동네와 관계를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것을 동네슈퍼가 동네의 커뮤니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으로 보았다. 동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활용품을 나눠드리는 복지 프로그램을 동네슈퍼와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것을 ‘동네슈퍼 A’에게 제안하고 협력하여 실행하였다.

2) 목적

나눔 프로그램은 동네슈퍼를 매개로 외부와 동네를 연결하고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동네에 지원되는 복지가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기능과 결합한다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네슈퍼의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가정하고 계획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세부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동네 복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동네슈퍼가 동네 사정이 밝고 같은 주민으로서 동네 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둘째는 동네에 대한 지원물품을 동네슈퍼를 통해 마련함으로써 동네슈퍼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네슈퍼와 동네의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할 뿐만 아니라 매출의 증대로 이어져 동네와 공생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3) 주요과정

나눔 프로그램의 주요과정은 대상자 선정 -> 물품 구성 -> 물품전달로 계획되었다. 대상자 선정과 물품의 구성은 동네슈퍼에서 직접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총 52분을 제안받았고, 협의를 통해 44분을 최종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었다. 물품의 구성 역시 일정 예산에 대한 맞춤형 물품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동네슈퍼는 자신의 경험과 동네의 전반적 의견을 수렴하여 물품을 구성하였다.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은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인 연구자는 동네의 골목, 골목을 잘 알 수 없기에 동네슈퍼의 가이드를 통해 일부는 직접 배달하고 일부는 동네의 주민이 잘 알고 있는 장소를 추천받아 그곳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2. 나눔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행

1) 대상자 선정

나눔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은 ‘동네슈퍼 A’가 진행하였다. 자율적으로 동네주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 드렸다. 이에 대하여 현재 동네에는 행정적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는 그 집에 수저가 몇 개가 있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나가는지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요. 예를 들면 저분이 참 곤란해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는데 저소득자들이 있으니까, 저 소득자들이 2번, 3번 받게 돼요. 다 고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된다고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못 받아요. 실질적인 것은 어중간한 사람, 말은 못하고 내색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¹⁷⁾

-동네슈퍼 A의 주인과의 인터뷰-

현재 외부에서 동네로 지원되고 있는 복지는 제도적 지원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동네슈퍼는 동네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정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나눔 대상자는 아래의 목록과 같이 선정되었다.

[표 4-1] 나눔 프로그램 대상자 목록

No.	대상자	나이	슈퍼 실제 방문 여부	선정사유	제외사유
No.1	J-1		O	다문화 및 결손가정	수령
No.2	C-1	70대	O	파출소 청소하며 생계유지	수령
No.3	C-2	80대		손주 둘 데리고 삶, 손주 한 명 군생활 중, 한 명은 전역	수령
No.4	C-3	70대	O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국립의료원에 5년 이상 투병 중	수령
No.5	C-4	80대		독거노인이지만 딸과 왕래는 있음	수령
No.6	C-5			다문화 가정	수령
No.7	C-6	70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 장애판정을 받음	현재 거주지에 없음
No.8	C-7			이웃집센터 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	젊음
No.9	C-8	80대		할머니가 허리가 많이 굽어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게 됨. 동네 아줌마들이 화투 치러 자주 오면서 화장지도 사놓고 음식도 나눠 먹고 함	수령

전체목록은 부록에 첨부

동네슈퍼에서 진행한 조사방법은 기존의 경험과 현장 확인을 통한 방법과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와 같은 공동체에게 지원 대상을 문의하여 각 대상자의 개인적 생활사정을 파악하여 선정사유로 들었다. 지원 인원의 제한으로 대상자를 제외하게

17) 인터뷰 전문은 부록에 기재.

되었을 때는 현재 상대적으로 생활사정이 개선된 사람 또는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 등 그동안 동네에 대해 알고 있는 경험을 활용하여 적합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었다.

2) 물품 구성

나눔 프로그램의 물품에 대한 초기 계획은 동네슈퍼에서 동네를 이용하는 손님의 경험적 구매정보와 동네 사정에 밝은 점을 활용하여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구성하려고 하였다. 동네슈퍼도 초기에 20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였을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현재 44명으로 늘리게 되자 지원 물품은 개인 맞춤형으로 구성하기에는 복잡해져 단일 패키지로 구성하게 되었다. 나눔 품목을 구성하는 과정에도 동네의 주민과 부녀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하였다.

[표 4-2] 나눔 물품 구성 목록

No.	품목	수량	사 진
No.1	주방세제	1	
No.2	섬유유연제	1	
No.3	콩치통조림	1	
No.4	식용유	1	
No.5	식초	1	
No.6	롤 휴지	1	

선정된 물품에도 이유가 있다. 섬유유연제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었고, 콩치통조림은 김치찌개를 위한 것이었다. 식초는 음식에 쓰이지만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도 유용하게 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물품은 종이 가방으로 개별포장을 하여 대상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림 4-1] 물품 조사를 한 용지(좌)와 구성된 나눔 물품(우)

3) 물품 전달

물품의 전달은 신체적 노동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젊은 인력을 활용한다. 젊은 인력은 동네 자체에서 조달될 수 있지만 대상지역의 고령화 특성상 외부 인력인 연구자와 대학원생 2명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계획 초기에는 직접 방문 전달을 목표로 하였지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대상지역의 복잡성 때문에 전체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동네슈퍼의 지적이 있었다. 계획을 변경하여 동네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물품을 그곳으로 옮겨놓고 그곳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상 직접 수령이 불가능한 분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하였다. 전달하는 일정도 동네주민이 자택에 거주하고 있을 일요일을 택하여 1차로 전달하고 그날 전달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날 전달하기로 하였다.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동네슈퍼의 역할이 필요하였다. 이동 동선에 따라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지정하여 주었고 대상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외부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원활하였다.



[그림 4-2] 직접 배달(좌)과 방문 수령(우)

4) 주민들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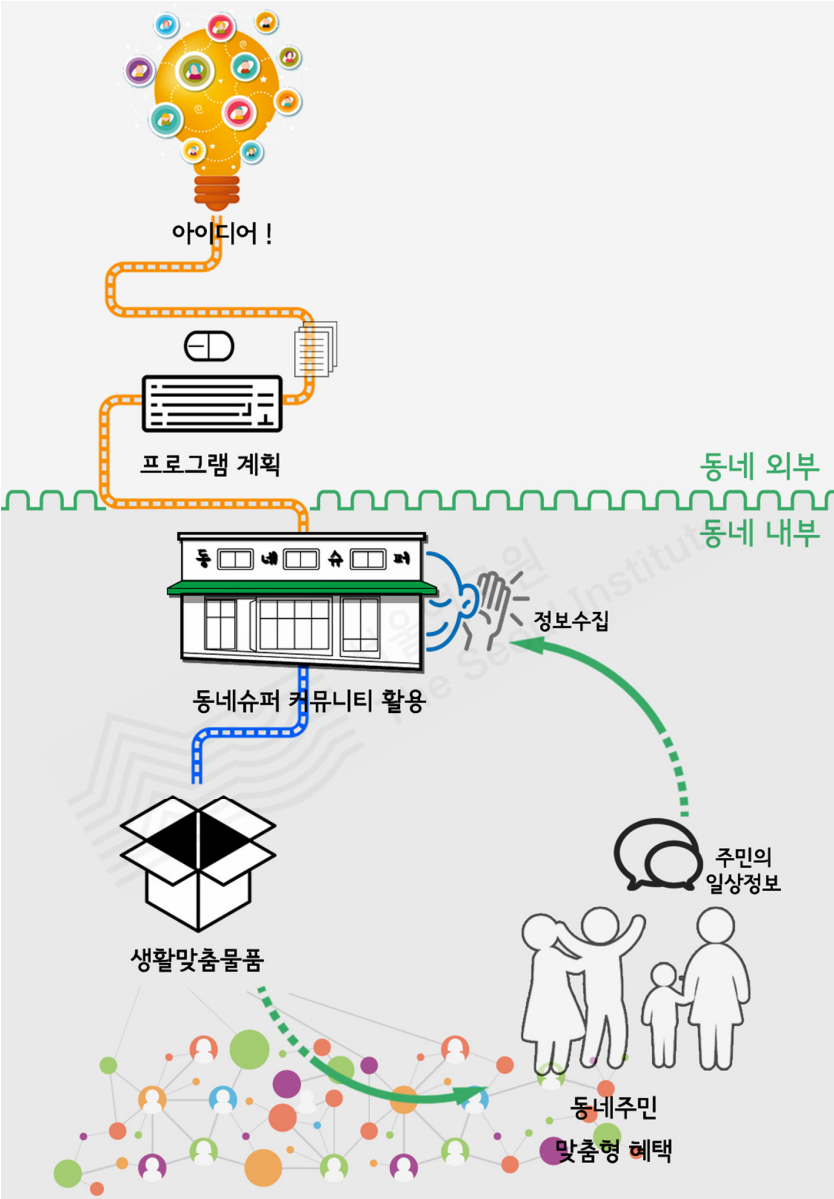
나눔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 대부분은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주로 동네슈퍼에게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고 동네슈퍼가 연구자를 소개해주므로 재차 고마움이 표현 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주민들은 이웃 주민의 물품을 대신 전달해주거나 연락을 해주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주었다. 일부 주민들은 기존 및 현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 주었다. 주요 내용은 충신동 지역에 집중되어 종로 6가가 지원의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실제로 충신동에 접한 종로 6가는 성곽 탓에 단절되어 인식적 동네로서는 충신동 과 함께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이중적 장소성을 가지고 있었다. 주민들은 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워하지만 선정된 이웃의 어려움은 공감하는 반응이었다.

3_나눔 프로그램의 결과

나눔 프로그램은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의 활용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동네와 동네슈퍼의 상생을 통해 동네슈퍼 수익과 공동체 복지가 함께 증진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주요한 성과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통해 수집된 동네 일상정보를 활용하여 동네 복지에 적용한 것이고, 둘째는 동네슈퍼와 청년봉사를 결합하여 지역 내부주체와 외부주체가 협력한 것이다. 셋째는 동네슈퍼와 주민의 관계망 확장을 통해 동네의 복지에 주민의 참여 비율과 복지 효율성이 증가한 것이고, 넷째는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공간적 범위를 파악한 것이다.

1) 동네슈퍼의 동네 일상정보를 활용한 동네복지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 사례로 이번 나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보았다. 이는 일회성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이를 통해 동네슈퍼가 동네 커뮤니티에서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네슈퍼가 사회적 기능을 통해 확보한 일상정보를 동네 복지와 연결시켜 활용하였다. 또한 동네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동네슈퍼의 영업적 이윤으로 연결시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모델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사업에서 동네상권과 동네생활의 연계를 통한 상생방안의 한 사례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



[그림 4-3] 나눔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2) 동네슈퍼와 청년봉사 결합을 통한 협력관계 설정

나눔 프로그램은 크게 동네슈퍼의 동네 코디네이터 역할과 외부 청년들의 프로그램 아이디어의 협력을 통해 실행되었다. 이 구조는 외부의 새로운 생각과 자원이 동네슈퍼를 통해 동네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 후에 동네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청년(외부주체)은 복지 지원예산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동네슈퍼는 동네 생활의 경험과 주민 관계를 통해 동네에 대한 효율적 접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동네 지원 프로그램의 내부주체와 외부주체의 이상적인 협력적 관계 설정을 제시해볼 수 있었다.



[그림 4-4] 나눔 프로그램의 협력관계도

이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해 동네에 대한 외부지원을 일방적 수용이 아닌 내부주체의 능동적 참여로 동네에 더 적합한 형태의 지원내용으로 가공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에서 지원되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네주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것을 청년과 동네슈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동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외부와의 접촉점인 동네슈퍼의 이중적 역할을 활용하여 청년과 동네슈퍼에 상호 도움이 되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표 4-3] 나눔 프로그램 주체의 역할과 이점

주체	동네슈퍼	복지대상	복지지원주체
역할	물품구성 및 대상자 조사	동네슈퍼와 관계 강화	예산 및 프로그램 지원
이점	매출 증대	실질적 복지 혜택	예산 대비 효율성

3) 동네슈퍼와 주민의 관계망 확장

나눔 프로그램은 동네 리서치 과정에서 외부주체가 들어나지 않는다. 동네 공동체의 일원인 동네슈퍼가 동네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동네 주민들에게 혜택이 전달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네슈퍼와 동네주민과의 관계망이 확장되고 강화된다. 일부 주민들은 직접 동네슈퍼를 찾아와서 감사를 전하는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동네주민의 동네슈퍼 방문증가로 이어졌다. 동네주민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영업이익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지만 나눔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동네의 일상정보에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커뮤니티 중심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증가한다. 이 프로그램이 상시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면 동네슈퍼와 동네주민의 관계 속에 선순환 고리를 작동시켜 동네슈퍼와 동네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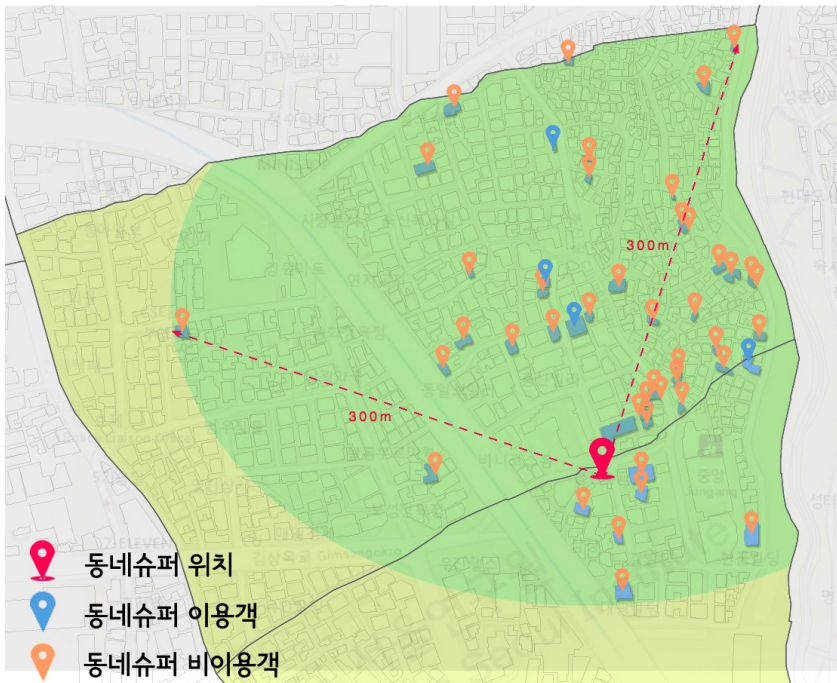


[그림 4-5] 나눔 물품 장소에 모인 주민들

4) 동네슈퍼 커뮤니티의 공간적 현황 파악

나눔 대상자 선정을 통해 동네 커뮤니티에서 동네슈퍼의 영향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직선거리는 최대 약 300m로 충신동, 종로 6가를 포함한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동네슈퍼가 동네로서 인지하고 있는 범위이다.

단일 자료로서 일반화할 수 있는 시사점은 부족하지만 동네슈퍼 단일 객체가 동네 정보 및 인적 관계에 영향에 미치고 있는 공간적 범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동네슈퍼 커뮤니티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자료수집이 지속적이라면 지역연구나 공공정책을 위한 현황조사과정에서 실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 4-4] 동네슈퍼 커뮤니티 활동의 공간적 범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동네슈퍼를 직접 이용하는 대상은 4개 주체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원이 필요한 대상 대부분이 동네슈퍼를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소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동네슈퍼는 직접적인 이용고객 이외에도 동네와의 관계를 통해 지역 현상을 쉽게 읽어 낼 수 있었다.

5) 개선 및 발전 사항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이와 함께 개선되거나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동네슈퍼를 통한 나눔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동체 자원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원이 아닌 동네의 커뮤니티를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선방안은 정책제언 장에서 ‘마을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둘째, 동네슈퍼와 동네의 다른 기관이나 시설과 연계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기능과 연계된 효율적 업무진행과 동네슈퍼의 영업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품 운반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한다. 대상지의 길은 경사지이고 좁으며 노면 상태도 고르지 못하다. 실제 물품 운반 도중에 수레가 고장 나는 등 운반의 어려움이 있다. 직접 배달을 하는 중에 주민분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일부 길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물품 운반 과정의 이상적인 대안은 동네주민의 봉사와 연계 또는 외부 청년 및 청소년과의 연계이다. 물품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지원은 공공기관이나 동네 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05

결론 및 정책제언

- 1_연구의 성과 및 결론
- 2_동네의 소비와 삶 연결 ‘마을포인트’
- 3_운영 관성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 정책

05 | 결론 및 정책제언

1_연구의 성과 및 결론

이 연구는 동네슈퍼의 사회적 기능을 재조명하면서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 역할에 주목하였다. 동네슈퍼는 동네 공동체의 생활 구성원이자 그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동네슈퍼는 판매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능은 주목받지 못하였었다. 이 연구는 동네슈퍼의 현장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동네슈퍼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기능의 성격과 유형을 구분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 중심 기능을 통해 동네슈퍼가 쌓아둔 동네의 일상정보를 활용하여 동네 복지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동네슈퍼의 수익이 발생하는 모델을 현장 실험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이용해 동네슈퍼가 동네의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일반 판매시설과 다른 성격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동네슈퍼뿐만 아니라 동네상권의 활성화 지원 및 육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표 5-1] 연구의 주요결과

동네슈퍼의 인터뷰와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커뮤니티 요소 발굴	동네슈퍼 커뮤니티 기능의 성격 분류 및 활용방안	프로그램 실험을 통한 동네슈퍼와 지역사회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운영 및 이용방식 - 공동체 일원으로 운영 - 일상의 공유 - 공간적 커뮤니티 요소 - 외부와 접촉점	커뮤니티 기능 3요소 - 사회적 요소 - 시간적 요소 - 장소적 요소	프로그램 실험 - 커뮤니티 기능 검증 - 커뮤니티 공간적 범위 파악 - 활용방안 제시

2_동네의 소비와 삶 연결 ‘마을 포인트’

1) 동네슈퍼의 공동체 가치 발굴 지원정책

동네슈퍼는 SSM과 대형마트, 즉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업시설로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기존에 진행던 공공의 지원도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동네슈퍼는 종합소매점으로서 상업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네슈퍼가 겉으로 보이고 있는 상업적 모습으로 인해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실제 하고 있다. 동네슈퍼의 상업적 기능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과 함께 동네슈퍼와 동네를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체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지원방향이 필요하다. 동네슈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회적 약자에서 공동체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가 시장중심의 자본 논리 때문에 공동체 문화가 파멸해지면서 공동체의 가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고 있다. 동네에서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기능은 대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동네슈퍼에 대한 정책지원은 시장성 향상 방향과 함께 그동안 지속되어 온 커뮤니티 역할을 발굴하고 그 역할을 동네발전 혹은 공동체 문화 발전과 연결하는 방향이 병행되어야 한다.

2) 동네의 커뮤니티 자원의 필요성

이 연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중심 기능의 가능성은 확인되었다. 이번엔 진행된 프로그램은 외부의 일회성 지원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다. 외부 주체를 이용한 동네 내부 지원은 지속성의 한계가 있고 동네주민이 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외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동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지원은 개인이나 일부 공동체에게 희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네의 공동체 자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네 공동체의 관계와 주체성 회복을 위해

서는 공동체 자원을 이용해 동네에서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역량이 축적되어야 하고 공공이나 외부지원은 자체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보조적 역할로 지원되어야 한다.

3) 동네 소비 및 공동체 자본축적과 연결 ‘마을 포인트’

동네의 공동체 자본축적을 위해 대형마트나 SSM, 편의점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 시스템의 목적은 이용객 재방문율을 높여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다. 동네슈퍼에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고 포인트 적립 혜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네에서 일어난 소비가 동네의 복지나 발전으로 순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5-2] ‘마을 포인트’와 일반 판매시설 ‘포인트’의 차이

주체	목적	방법	포인트 이용대상	방법
동네슈퍼	재방문을 증가	소비에 대한 일부 금액 적립	공동체	동네복지지원 공동체 사업
대형마트, 편의점, SSM	재방문을 증가	소비에 대한 일부 금액 적립	개인	서비스 혜택

‘마을 포인트’를 통해 동네슈퍼는 마케팅 효과 및 재방문을 증가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소액 적립을 통해 공동체 자원으로 환원하게 된다. 동네슈퍼에서의 동네주민 소비는 동네의 공동체 자원을 거쳐 주민의 삶과 연결하게 된다. ‘마을 포인트’를 활용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3] '마을 포인트'를 통한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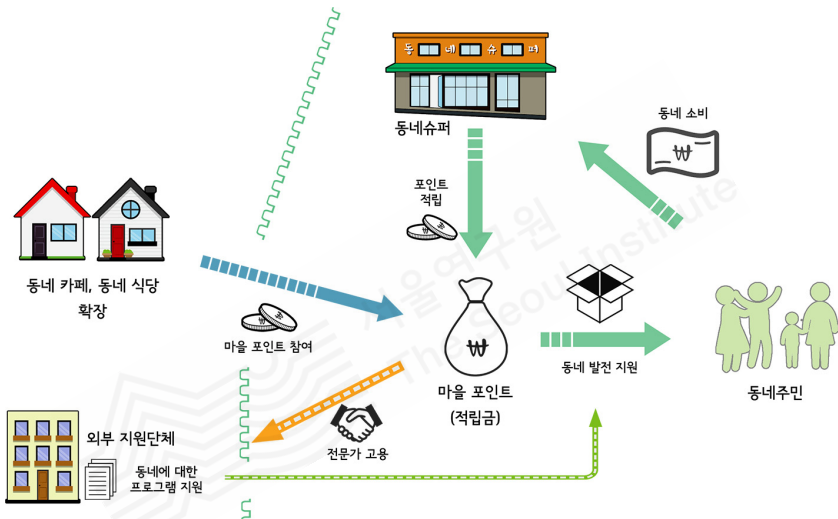
동네슈퍼	동네 공동체
① 공동체와 관계증진 ② 상업적 이익 증대 ③ 고정 이용객 증가로 매출안정성 확보 ④ 기부금으로 세제 혜택 ⑤ 외부상업시설에 대한 경쟁력 강화	① 공동체 자원을 통한 관계강화 ② 동네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개선 ③ 주체意識 강화

‘마을 포인트’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부분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동네슈퍼가 운영해온 운영방식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동네슈퍼는 몇십년 운영해 오면서 생겨난 경영 철학이나 일상의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을 포인트’ 시스템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의 존중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는 ‘마을 포인트’가 전시효과를 가져야 한다. 동네주민이 소비와 함께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이나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모니터와 같은 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시각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소비가 공동체 자원으로 연결되는 것과 현재 공동체 자원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 그리고 광고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이러한 시스템 장비에 대한 지원은 공공이나 외부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마을 포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동네슈퍼 A’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동네슈퍼 A’의 주인과 아주머니의 반응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동네슈퍼 A’의 아주머니는 ‘마을 포인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동네슈퍼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해 주었다. 반면 주인은 ‘마을 포인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관찰과 대화내용을 통해 그 원인은 현재 동네 커뮤니티와의 관계 및 동네 주민의 소비가 동네슈퍼의 매출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에 실망감과 피로도가 쌓인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동네슈퍼 A’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사회의 전반적 변화로 인해 동네가게의 사회적 기능이 축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하지만 이런 현상은 ‘마을 포인트’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동네슈퍼와 동네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동네의 공동체 관계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 ‘마을포인트’는 소기의 목적에 따라 동네와 동네슈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동네슈퍼에서 동네주민의 소비증가를 통한 상생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림 5-1] '마을포인트' 시스템의 구조

18) 배설훈, 박소현, 2015, “동네 사계의 사회 기능과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pp.21~36, 한국 도시설계학회

3_운영 관성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 정책

1) 오래된 가게에 대한 보존 정책

동네슈퍼의 영업기간은 10년 이상이 전제된다. 운영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융통성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자기가 운영하면서 보낸 시간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이러한 동네슈퍼뿐만 아니라 동네의 골목상권을 이루고 있는 가게의 주인에게 무조건 새로움을 강요할 수는 없다. 오래된 가게가 새로움으로 통일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크고 몇십 년을 운영해 온 가게의 본질이 바뀌어 버릴 수 있다. 그렇기에 오래된 가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가능한 많은 관찰과 소통을 이용해 본래의 기능을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집중되어야 한다.

2) 동네가게와 동네를 함께 생각하는 정책

동네의 오래된 상점이나 가게들은 동네슈퍼와 같이 동네의 공동체로서 오랜 기간 지속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가게는 관계중심의 영업구조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게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동네가게를 단일객체로 보는 활성화 방안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에게 동네가게의 위치와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같은 구성원임을 확인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치 공유를 통해 동네 공동체의 자발적 힘으로 동네가게를 활성화시켜야 지속성이 더 유지된다. 공공의 정책은 이러한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현근, 2007,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24호, 28, pp.59~86
- 관태구·생낙일, 2014,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 실증분석”, 「經濟分析」, 제20권 제2호, pp. 56~91,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김범식, 2012,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정책방안”, 「정책리포트」, pp.1~17, 서울연구원
- 류주현, 2004, “대형할인점이 소매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3), pp.163~181, 한국지역개발학회
- 마상열·안점판, 2012,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의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방안”, 「정책포커스」, pp.1~35, 경남발전연구원
- 배선헌·박소현, 2015, “동네 사계의 사회 기능과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pp.21~36, 한국도시설계학회
- 신기동 외, 2010,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의 지역상권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정책연구」, pp.1-133, 경기연구원
- 심우장, 2104, “구멍가게의 역사와 기능”, 실천민속학연구 제24호, 37, pp.89~125
- 이경민 외, 2014, “대형상업시설 입지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0(4), pp. 49~56, 대한건축학회
- 이은주·권영선, 2014,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정책이 실제 소형가게 매출을 증가시켰는가?”,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565~584, 한국산업경제학회
- 네이버뉴스 검색키워드 ‘동네슈퍼’, 1993~2016, 4153건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1528486589624960&DCD=A00302&OutLnkChk=Y> (이데일리, 2009.03.19)
- <http://www.nocutnews.co.kr/news/1016908> (노컷뉴스, 2013.03.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7173457> (연합뉴스, 2014.10.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7064982> (연합뉴스, 2014.08.13)

<http://mnb.moneys.news/mnbview.php?no=2013030722008084686> (MNB, 2013.03.08)



부록

“나눔 프로그램 대상자 목록”

No.	대상자	나이	슈퍼 실제 방문 여부	선정사유	제외사유
No.1	J-1		○	다문화 및 결혼가정	수령
No.2	C-1	70대	○	파출소 청소하며 생계유지	수령
No.3	C-2	80대		손주 둘 데리고 삶, 손주 한 명 군생활 중, 한 명은 전역	수령
No.4	C-3	70대	○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국립의료원에 5년 이상 투병 중	수령
No.5	C-4	80대		독거노인이지만 딸과 왕래는 있음	수령
No.6	C-5			다문화 가정	수령
No.7	C-6	70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 장애판정을 받음	현재 거주지에 없음
No.8	C-7			이삿짐센터 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	젊음
No.9	C-8	80대		할머니가 허리가 많이 굽어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게 됨. 동네 아줌마들이 화투 치러 자주 오면서 화장지도 사놓고 음식도 나눠 먹고 함	수령
No.10	C-9			청소로 생계유지, 자식은 있지만 도와주지 않음	수령
No.11	C-10			배달로 생계유지	총각이고 일전에 쌀 지원받음
No.12	C-11			네팔 사람	고민 끝에 제외

No.	대상자	나이	슈퍼 실제 방문 여부	선정사유	제외사유
No.13	C-12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쌍둥이 둘과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음. 원단 일로 생계유지	고민 끝에 제외
No.14	J-2	70대		독거노인	수령
No.15	C-13	60대		기억이 안 남	수령
No.16	C-14	70대		3평 집에서 거주, 무릎 수술과 아들 장애	수령
No.17	C-15			현재 무직	수령
No.18	C-16	60대		교회 봉사활동과 일일 근로로 생계 유지	근로로 생계유지하므로 제외
No.19	C-17			건물주가 자기 집 위층에 살고 있는데 도와 달라고 요청	사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외
No.20	C-18	50대		이혼하고 딸 둘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작은 딸이 희귀병으로 서울대 병원에 있음	수령
No.21	C-19	50대		이혼하고 자식 둘 데리고 삶	수령
No.22	C-20		O	아저씨가 장애 있음	수령
No.23	C-21	70대		생계가 어려움	수령
No.24	C-22	40대		이혼가정	수령
No.25	C-23	80대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있고, 할머니가 폐지수집으로 생계유지	수령
No.26	C-24	70대		할아버지와 관계 문제로 낮에는 집에 못 들어감	수령
No.27	C-25	70대		기억이 나이 많음	수령
No.28	C-26			약간의 장애	수령
No.29	C-27			기억이 나지 않음	수령
No.30	C-28	60대		독거노인, 자식이 도와주지 않음	수령
No.31	C-29	60대		자식이 장애, 박스 좁고 원단 샘플 일 받아서 생계유지	수령

No.	대상자	나이	슈퍼 실제 방문 여부	선정사유	제외사유
No.32	J-3	80대		아들이 알코올 중독, 할머니 장애	수령
No.33	C-30	40대		다문화 가정인데 가끔 와서 쌀 달라고 함	수령
No.34	J-4	70대		자식이 도와주지 않음. 폐지 수집으로 생계유지	수령
No.35	C-31	70대		형편이 어려움	수령
No.36	J-5	70대		집은 있고 지하철 택배로 생계유지	수령
No.37	C-32	80대		독거노인 생계가 힘들	수령
No.38	C-33	80대		할머니가 최근 사망	수령
No.39	C-34	70대		할아버지께서 2달전에 돌아가시고 현재 폐지줍기로 생계유지	수령
No.40	C-35	80대		자식은 있지만 도와주지 않음. 옆집에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	수령
No.41	C-36	50대		결혼 가정	수령
No.42	C-37	70대		자신과 딸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동네에서 도와줘서 LH 신청해서 집을 구함	LH 신청이 됐으니 제외
No.43	C-38	80대		자식 정신장애, 교회에서 도와줌	수령
No.44	C-39	40대		딸 둘 데리고 제품하며 생계유지	수령
No.45	C-40			독거, 제품일 하면서 생계유지하지만 월세를 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움	수령
No.46	C-41	70대		딸이 잘 도와준다고 하지만 일단은 도와줌	다른 분께 전해달라고 요청
No.47	C-42	70대		딸이 좀 도와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요청	수령

No.	대상자	나이	슈퍼 방문 실제 여부	선정사유	제외사유
No.48	C-43	70대		할머니가 쓰러져 병간호로 생계가 어려움	수령
No.46	C-41	70대		딸이 잘 도와준다고 하지만 일단은 도와줌	다른 분께 전해달라고 요청
No.47	C-42	70대		딸이 좀 도와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요청	수령
No.48	C-43	70대		할머니가 쓰러져 병간호로 생계가 어려움	수령
No.49	C-44	80대		집이 있고 세를 받아 살지만 자식이 도와주지 않음. 현재 방이 세가 나가지 않아 생계 어려움	수령
No.50	C-45			다문화 가정, 결혼가정	수령
No.51	C-46			약간의 장애	수령
No.52	C-47			김치를 담거나 반찬 만드는 소일거리로 생계유지	수령

‘동네슈퍼 A’의 주인과 인터뷰 내용

우리는 그 집에 수저가 몇 개가 있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나가는지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요. 예를 들면 저분이 참 곤란해요.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는데 저소득자들이 있으니까, 저 소득자들이 2번, 3번 받게 되어요. 다 고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된다고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못 받아요. 실질적인 것은 어중간한 사람, 말은 못하고 내색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도와줘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데, 국적을 안 따고 힘들게 생활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국적을 못 따니까 걸릴까 싶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무작정 일만 하다가 ‘너 나가라’ 하면 나오고 요즘 같으면 외국인 한 명은 저녁을 계속 먹여줬는데, 저녁을 안 먹여주고 그냥 퇴근해라 이런데요. 그런 사람도 계 중에는 있어요. 국적을 못 따서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 외국인 애들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새마을 총무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쌀도 좀 주고 했는데, 저번에 와서 ‘아줌마, 쌀이 떨어졌어요’ 하면서 당연히 주는 것처럼 알고 있어. 자기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좀 기다려봐. 지금은 때가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말해주고 쌀이 10kg짜리 몇 개 나와서 외국인 애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랬어.

‘동네슈퍼 C’의 주인과 인터뷰 내용

그때는 학생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면 이 치마에 돈이 하나 가득했어, 애들이 훔쳐가도 몰라 너무 많아서 엄청 팔렸지, 우유 하드 휴지, 그때는 애들 다 휴지 가져오라고 했지 지금은 안 해도 애들이 또 시험 잘 보면 선생님들이 우유 한 박스씩 사서 먹이고 하드 사서 먹이고 그랬지, 무조건 한 시간 끝나면 나와서 사가지고 가니까 한 시간 되면 치마로 돈이 한가득했어. 시간마다 학교 밖으로 다 나왔어, 그때는 학교 매점도 없었어. 그대신 장사가 여기저기 곳곳마다 있었지, 이곳에만 4개가 있었어.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 집인 사람들만 살아남고 세 들어서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갔지. 여기랑 저 집(현재 편의점, 이전에는 구멍가게)도 원래는 이발소였어.

저기 앞이 편의점으로 바뀐 지 얼마나 되었나요?

5년인지 4년인지 되었어, 저게 5년계약 이래 5년지나면 권리금주고 다시 계약하는데, 그런데 워낙 세가 싸니까, 저거 할 때 2천만에 내놓고 한데, 우리집 와서 하라고 한다는데, 우리집 멀쩡한데 왜 하나고, 안 한다고 했지 그런데 저쪽 넘어서 하나는 CU 있고 하나는 뭔가 있고 하는데 거기는 잘 안돼, 여기는 자리가 좋아 저기 앞에 앉아서 먹고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하지만 언제 저기는 구청에서 헐어낼지 몰라 보상해줄 것도 적으니까. 길이 좁아서 여기 아침저녁에 차가 많아서 다니기 힘들어.

그때는 여기 저지 넘마 좁는 데 있어 그때는 밖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맨날 술먹고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무섭게 생겼길래 소리 지르나 싶어서 보고 싶어도 무서워서 보지 못했어. 여기 넘마 망태기 지고 집게로 집고 하는 사람이 우리 저기 체부동 살 때 거기까지 망졌는데 여기 오니까 있어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 했어 새 옷 빨아서 널어도 집게 다 집어 가져갔어 그러니 무서워서 내다 보지도 못했지. 우리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집도 없었어.

여기 산도 자갈산이었어, 잘못 내려오면 엉덩방아 찢어, 여기 이사 왔을 때는 물도 잘 안나와서 저기 위에 물 뜨는 곳이 있었는데, 물 뜨고 내려오다 자갈에 미끄러지면 물 다 쏟고 그랬어 산 저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수도물이 좀 나왔다가 점점 더 많이 나와지고 여기 공동수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다 없어졌어, 여기가 청와대 가까워서 수도 파이프는 깨끗해. 내가 보니까 그래 파이프 오래 되면 녹슬잖아 여기는 그런 거는 없어 녹슬기 전에 다 갈아.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석별(자갈밭)이라고 한 곳 있지, 세븐(편의점) 저 앞으로 해서, 다 학교방이 있어 판자집 얇은 것으로 해서 저기 연탄 피는 것을 꼭 걸어 났더라고 저기 있는 사람들 성남으로 보냈어,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어, 저기 다 헐어낸다고.

여기 길이 리어카 하나 다닐만 했는데, 넓어진 거야 집 지을 때 때어 놓고 차도 못 들어갔었어. 그리고 저 길도 없었고, (성안쪽길) 길 내느라고 집에서 내놔. 그때는 판자집 지어서 살면 자기 집이었으니까 구청에서 사유지 다 내놓으라고 했었어 자기 땅이었던 사람은 얼마씩 주고.

성 쌓는 것도 봤구만 푹푹푹푹하면서 쌓는 거 보면서 참 잘 쌓는다 했어, 그런데 성도 더 할 것인데 세븐 주인 때문에 이태해타 저리해타 해서 성이 저렇게 된거야, 원래 저 집에 옆에 성이 있었어, 지금은 성 원래 자리가 아니야. 사직공원은 못 가봤어 문둥이 있다고 해서. 사직공원은 원래 수영장이었어.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되고 저녁에 동네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물건을 사가, 그전에는 잠깐 앓을 사이도 없었어, 그때는 젊었으니까 힘든지도

물랐고, 학교도 있었고 우체국 기숙사도 있었고, 그때는 전화국 사람들이 교육장이었어.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장사도 줄지, 그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 왜 그런가 하면 일 할 거 다하고 어디 가서 놀다가 먹고 들어오면 또 배고프니까 밥을 그때는 해줬어. 근데 아줌마들이 일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그게 보험이 안 된데, 일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게 말이 많아져서 밥 해주는 게 없어졌어. 잘 먹고 자야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술 먹고 들어가면서 라면 끓여 달라 해서 끓여주면 잘 먹고 가서 아침에 출근해야지. 그 사람들 다 높은 사람들 되어 있으니까.



작은연구 좋은서울 16-07

동네슈퍼마켓의 커뮤니티 코어로서의 가능성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6년 10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